

# “삼락농정, 구호성 공약 표본정책 전략”

### 이학수 도의원, “홍보비로 3년간 4억9000만원 집행… 여전히 체감할 만한 성과 못 내”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도정의 최우선 정책인 삼락농정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정읍2·더불어민주당)은 6일 도청에서 열린 <2017년 삼락농정 농업·농촌 수상작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도내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정책들이 ‘삼락농정’이라는 타이틀에 묶여서 자칫 보여주지 못하는 정책이 치우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각종 매체에 삼락농정을 홍보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작년부터 시행한 농업·농촌 수상작 전시회에는 4,000만 원을 투입해 삼락농정 홍보비로 지난 3년 간 총 4억9,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며 “삼락농정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6,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연평균 50회에 이르는 삼락농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30개 사업(108억1,200만 원)을 발굴한데 이어 2016년에는 절반 수준인 17개 사업(35억2,300만 원), 2017년에는 14개 사업(23억4,400만 원)을 발굴해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그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삼락농정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보여주지 못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0주년 기념식

정세균(왼쪽 다섯째) 국회의장과 이내영(왼쪽 넷째)국회입법조사처장 등 내빈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떡 케이크 커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별 삼락농정협의체를 통해 지역 농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것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의 가치를 내세운 삼락농정이 민선6기에 기반을 확고히 해서 농

도전복의 위상이 회복되고 그 성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바람을 나타냈다.

/김진성 기자

## 與, 바른정당 분당 “적폐로의 회군”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바른정당 국회의원의 9명의 탈당선언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영향력이 그대로이고, 비위발레 세력”과 “인하부인 세력” 간의 진흙탕 싸움이 난무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원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들이 돌아가려는 자유한국당이 10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통절한 마음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개혁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불과 10개월 만에 사죄의 마음과 정치실현에 대한 다짐을 배반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의 오늘 회군은 보수통합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쫓는 적폐로의 회군”이라고 일갈했다. /뉴시스

## 바른정당 통합과 9명, “보수대통합의 길 가겠다”

### 8일 탈당계 제출 후 9일 한국당 복당 예정

바른정당 통합과 의원 9명이 6일 “보수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정양석·홍철호·황영철 의원 등 통합과 의원 9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통합과와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우리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대통합의 길에 나선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심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

뉘지 않고 큰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우리가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탈당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현정 중단이 우려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수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며 “새로운 보수의 중심점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우리에게도 보수 분열의 책임만 남았다. 이 땅에서 보수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며 “개인과 집단의 아집을 버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보수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

고 덧붙였다.

통합파의 수장 격인 김무성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들의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비난은 받아들일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바른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대선도 치렀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은 저를 비롯한 모두의 책임이다. 현 시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보수 국민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통합과 의원 9명은 오는 8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한국당에 복당할 계획이다. /뉴시스

## 김광수, 근영여고 기숙사 신축 예산 17.4억 확보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 갑)이 6일 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17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김광수 의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근영여자고등학교는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학교이다.

그러나 기숙사가 없는 관계로 정서적 안정이나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측면이 존재해 많은 교육 수요자의 권리를 의도치 않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전주시 22개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없는 학교는 근영여고를 포함한 2개교이며, 내부 사정으로 기숙사 건립이 어려운 학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기숙사가 존재하지 않는 학교는 전주시 일반계 학교 중 근영여고가 유일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기숙사 신축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전주 근영여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의회, 문화관광재단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전북도의회 ‘사례비교를 통한 문화관광재단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재완)가 6일, 전문가 초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출범 2년차를 맞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아직도 관광기능 활성화에 관한 명확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충북문화재단의 김희식 기획운영팀장이 전국 광역문화재단의 운영 추세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관광기능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기 교수는 “재단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문화와 관광의 모호한 경계는 모호한 조직구성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본부와 문화관광본부, 2본부 체계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재단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식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이 이어지면서 문화행정의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하고, “광역문화재단이 중앙과 기초,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예술지원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재완 의원은 “문화와 관광은 따로 또 같이 인식되는, 경계가 다소 모호한 영역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문화와 관광을 유기적으로 융복합시켜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고, “이번 세미나가 그 고민에 한 걸음 다가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세미나 개최 의의를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10월 전북과 함께 유일하게 재단명칭에 관광을 반영한 전남문화관광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관광사업 등 운영전반을 살펴본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 교육 회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병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